

2 강 말씀이 창조하는 교제의 개방성과 배타성

요한 1 서 2:1-17 토요일 저녁

빛 가운데 이뤄지는 형제자매 사랑(1-11 절)

교회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은 하나님과 원수된 개인들을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죄의 보혈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양심에 일곱번 뿌려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자 파송의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죽기까지 바친 순종과 사랑을 하나의 구원드라마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내어주시는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자기몸 바친 사랑을 감히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parakletos)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때, 우리가 독생자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사랑을 영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용기를 고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듀엣을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셔서 이 우주적 사랑 드라마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캐스팅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사랑을 인지하고, 확신하고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쓰시는 문장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인류구속을 위한 동역과 유대, 일치와 연합을 말하는 문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장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인류구원 드라마 관련 선언이나 명제나 주장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입체적인 하나님사랑 경험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개인과 공동체 속에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몬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아담적 불순종과 죄, 이웃과 동료에 대한 형제살해적 카인 죄악, 온 세상을 홍수아래 침수시키는 아낙자손같은 육체중심, 폭력숭배적 문명타락 죄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지성소인 양심에 일곱번 뿌려지고 우리의 제단에 발라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게 만들어 주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은 참된 회개, 참된 믿음, 하나님과 일상적인 동행을 참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은혜로 쏟아부어집니다. 성령을 갈구하는 공동체와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놀라운 보혜사 성령이 거룩한 포도주처럼 쏟아부어집니다. 교회는 담임목사나 개척교우들의 헌신과 영웅적 고생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야기로 시작되고 지탱됩니다.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내어주는 사랑의 십자가이지만,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 속죄의 십자가, 죄송스런 용서감격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마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히 8:12-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히 10:14-22).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1 절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의 중보자, 대언자(파라클레토스) 사역이 이뤄집니다. 요한복음 14:16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하지요. 여기서 원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이끌어 매어줍니다. 원조보혜사입니다.

원조보혜사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이미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 죄악된 옛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는 지지사역입니다. 공동체 교제에 잔류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사역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냉담한 무관심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우편보좌 중보사역이 이뤄집니다. 이 그리스도 중보사역을 우리가슴에 각인시키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교회공동체를 하나되게 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되되 세상을 향해 선교적 책임감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우편대언 사역, 중보사역의 핵심은 우리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요한복음 13 장 33-34 절의 그 사랑의 모본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의

발을 씻기는 자처럼 자신을 낮추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사랑을 본받게 하십니다.
형제자매사랑의 계명이 바로 3 절이 말하는 그의 계명(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노라”고 주장하면서 이 형제자매 사랑, 자기소진적,
자기강하적(자기검비적)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거짓말 장이입니다. 부부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 자기소진적, 자기강하적 사랑실천은 필수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모방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자매 사랑은 창세기 3-11 장의 원죄 확장과 전세계적 팽창을 역순으로 무효화하는
새하늘과 새땅 창조운동입니다. 새하늘과 새땅은 옛하늘과 옛땅의 반역과 죄를
극복하는 과정의 절정에서 창조됩니다. 이 비상한 형제자매 사랑,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감화감동에 추동되는 형제자매사랑은 새 하늘과 새땅이 동터오는 여명입니다.
어둠은 지나갑니다. 어둠은 형제살해적 타자약탈적, 타자배척적 삶의 태도는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형제사랑 미실천자는 아직 어둠에 억류되어 있는 자입니다. 동터오는
하나님나라 여명을 감지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억류되어 있고 어둠 속에 행하며
방향감각 상실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안목정욕, 육신정욕, 이생자랑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탐욕적, 타자약탈적, 상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의 원리에 속박되면 어둠에
억류된 자가 맞습니다.

반면 빛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화해의 사람으로 일상생활로 생긴 죄와
허물을 주기적으로 회개하여 어둠에 억류될 수 없는 자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케 된
자는 아니지만 부단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도의 교제에 친숙하게 어울리는 공동체
접목개인입니다. 빛의 공동체에 유대를 강하게 느끼는 자들이 빛의 자녀입니다.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참 놀라운 매개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본질적으로

흩어진 개인들을 친밀하고 살갑게 결속시키는 공동체의 영이면 평안의 때는 줄로 묶어주시는 일치와 연대, 우정과 동역의 영입니다. 이 공동체의 우정끈에 묶인 사람들은 세상의 거친 죄악물결에 결코 떠 내려가지 않습니다.

덧없는 욕망추구와 영원한 생명친교(12-17 절)

요한일서를 받는 (에베소)의 공동체는 [청소년]자녀교인(테크니온), 아이교인(영유아; 파이디온), 아비교인(파테르), 그리고 청년교인(네아니스코스, 네아니아스)들로 구분되는 작은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연령대로 구분하고 있으나 영적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녀교인(테크니온)은 사죄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초신자입니다. 사죄의 감격 때문에 세상과의 창조적 분리를 경험하면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 곧 세례교인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비단 청소년교우를 가리키기보다는 막 세례받고 사죄감격에 들뜬 교우들입니다.

아이교인(파이디온)은 하나님의 아버지되심을 이제 막 깨닫는 수준의 신자입니다. 아버지를 안다고 할 때 하나님아버지를 의미할 수 있고 영적 아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의미할 수 도 있습니다. 전자의 의미로 아버지를 아는 아이교인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간 수준의 교인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초신자입니다. 아이교인은 신령한 젖을 먹는 단계입니다. 하나님말씀이 꿀처럼 달고 원기를 북돋아주는 음식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신앙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교인들입니다. 자녀교인과 아이교인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이들은 성숙한 아비신자, 청년신자들을 견습하고 모방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자들입니다. 관계에 민감한 교인들로서 관계성 안에서 자라가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비교인과 청년교인은 신앙공동체를 유지, 존속, 계승시키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사명을 느끼는 교인들입니다. 아비교인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귀를 가진 지 오래된 교인들이 영적 생명을 재생산하는 의무가 있는 교인입니다. 아버지와의 사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 사귀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교인입니다. 아비교인은 암탉처럼 알같은 태신자를 품어 새끼를 부화하는 교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비교인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새신자를 품고 해산하십니다. 아비교인의 성숙한 인격과 신앙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령은 아비교인들을 통해 아이신자를 생산하십니다.

청년들은 강하고 그말씀의 검으로 흉악한 자를 대적하고 이기는 교인입니다. 청년들의 강함은 그 안에 하나님말씀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말씀을 내면화시킨 교우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심지어 세상의 악과 대적할 영적 기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나님말씀이 청년안에 거한다는 말은 청년들이 하나님말씀에 민감하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말씀에는 하나님의 심장, 속생각,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인류창조와 희망, 하나님의 의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세상변혁적 공세성을 진작시킵니다. 기독청년들에게 세상은 변혁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정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활기차 보이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정욕과 자랑질입니다. 육신의 정욕(에피튀미아 테스 사르코스[epithymia tes sarchos,]) 안목의 정욕(에피튀미아 톤 옵탈몬[epithymia ton ophthalmon]), 그리고 이생의 자랑질(알라조네이아 투 비우[alazoneia tou biou=생명력의 헛된 영화. 사 40:7-8 태양 아래 쉬이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같은 생명자랑. 곧 끝날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영속성 망상])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가장 귀한 영생을 잃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친교보다는 이 세상의 덧없는 생명에 온갖 충성을 다바치는 삶입니다. 육신 정욕(의식주 과잉충족), 안목정욕(보기에 좋아보이는 것들을 다 가로채려는 욕망), 자기생명력이 영속할 것이라고 믿는 망상탐닉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같은 에덴중앙 금단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영생을 스스로 누리려고 하다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아담인류의 영생향유 분투는 이생에서 잠시 피는 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자란 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살하고 등진 상황에서 핀 꽃이기에 덧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이라는 영어 secular 는 이 세상적이라는 말입니다(se[this, 이]+culum[세상, age or period of time]).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땅은 이 덧없는 인간탐욕과 죄를 이긴 후에 등장하는 새 인간문명질서입니다. 약탈적, 배제적, 투쟁적, 자기복무적 삶의 방식은 하나님성품과 어긋난 삶이기에 새하늘과 새땅에서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창조 자체가 당신의 거룩한 자기소진, 자기희생을 경험한 것이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독생자내보내어주심은 그 하나님의 창조주적 자기소진의 극적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내어줌, 나눔, 사귄, 자기낮춤을 통한 타자배려으로 십자가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2:6-11 이 바로 아담인류의 죄를 역으로 극복하는 마지막 아담인류 예수 그리스도의 극한 순종과 하나님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할 그 무엇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주와 그리스도로 높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영생을 열어젖힌 길입니다. 아담인류의 죄성아래 억류되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눈부신 십자가 광채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들은 빛의 사귄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안목정욕, 육신정욕, 이생을 영생으로 착각하는 망상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빌립보 2:6-10 의 길을 모방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사랑 실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과 지금부터 거하기 시작합니다. 영원의 나라의 빛이 이미 하나님과 거하는 빛의 공동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알곡 가라지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는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비추는 빛이 와 비춥니다. 아무리 지상교회가 가라지 같은 자들에 의해 대표되어도 알곡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알곡신자들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나라의 빛이 서려있는 삶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 세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일방적인 영향을 받아 영적 냉각에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상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자기소진적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아버지의 독생자선교입니다. 우리 또한 가장 귀한 것을 바쳐 하나님의 세상구원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생명친교가 덧없는 욕망자랑 이생자랑질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생명친교는 시간을 잊게 만드는 친교입니다. 나의 작은 존재가 하나님께 녹아드는 신비한 연합과 우정을 느끼는 친교입니다. 생명친교는 모든 것을 내어바쳐도 아깝지 않는 친교입니다.

이 생애 속한 세상교회는 그런 생명친교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친교돌입 직전 예비공동체입니다. 이생의 자랑질, 욕망들에 붙들려 살기에 생명친교를 아직 잘 몰라 세속적입니다. 생명친교 대신에 세상적인 교인들이 즐기는 것은 지위, 재산, 외모, 학력/경력 자랑질이거나 자신의 욕망발산경험, 자기탐닉적 욕망, 자아숭배적 욕망 과시입니다. 참 덧없는 것들입니다. 육신정욕, 안목정욕, 이생자랑질만 그쳐도 거룩해 보입니다. 세상을 두 개의 덧없는 욕망과 하나의 자랑질로 축소시켜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미 깊이 참여해 본 사람들입니다.

